

코트라, 日·남아공서 'K-라이프스타일' 행사

한류 타고 소비재 수출길 넓힌다

나고야 이온몰 기소가와점서 34개 기업, 뷰티용품 등 선봬

요하네스버그 수출상담회부터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한류 문화 확산을 등에 업은 한국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국 소비재 수출을 돕기 위한 '2024 K-라이프스타일' 행사를 일본 나고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남아공 행사의 경우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기획됐다.

먼저 나고야에서 열리는 K-라이프스타일은 일본 최대 쇼핑몰 체인인 이온몰(AEON MALL) 기소가와점에서 8일까지 진행된다.

일본 시장에 첫 진출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된 34개사가 △뷰티용품 △헬스케어 △생활용품 등 100여종의 프리미엄 소비재를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 아이돌그룹 '델라(Dela)'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판촉전 개시에 앞서 SNS를 통해 제품 홍보에 나섰다.

한류는 일본인들의 생활과 소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대형 소비재 유통망 로프트(LOF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 매출은 2020년 대비 5배 증가하며 로프트에서 판매된 전체 화장품 매출액의 16%를 차지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코트라는 로프트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서울에서 '일



일본 나고야에서 6월28일~7월8일까지 진행되는 'K-라이프스타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일본 아이돌그룹 '델라(Dela)'의 멤버 이마다 노조미(Imada Nozomi)가 SNS를 통해 한국 소비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코트라

본 로프트 일대일 입점 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 3일~6일까지 열린 K-라이프스타일 행사의 경우 6월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협력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아프리카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력해 △수출상담회 △한국소비재 판촉전 △시식회 △문화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수출상담회에는 국내기업 19개사를 비롯해 남아공과 케냐, 모잠비크 등 3개국의 바이어 27개사가 참여했다. 또 한식품과 전통주 시식·시음회를 비롯해 한국문화원이 주관한 한국 화장품·한복 체험관, K-팝 라운지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사전 신청자가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현

장을 찾아 한국문화를 즐겼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대 아프리카 수출액은 1579만달러로 2018년부터 연평균 58.2%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남아공에서 한국 식품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고, 현지인들이 매운맛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한국 식품 선호도가 높다. 냉동만두와 라면 등 간편식이 남아공 주요 유통매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고, 올해는 현지인이 한식당을 개점하는 등 한식 열기도 뜨겁다.

정외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내 중소 도시에 한국 소비재 수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북 예천양돈농장 돼지열병 확진

안동 발생 이후 5일 만에 추가 발생 충북 단양 등 6곳 이동중지명령 발령



긴급 방역 모습.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7일 경북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날인 8일 오전 6시까지 경북 예천과 안동,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에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긴급 방역·살처분 등을 실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양돈농장(960마리 사육)의 ASF 의심신고가 이날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2일 경북 안동지역 발생 이후 불과 4일만의 추가 발생이며, 올해 들어 6번째 양돈농가 내 확진이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 및 양돈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립·차량의 이동 통제에 나섰다. 예천군 및 인접한 시·군 6곳(경북 안동, 영주, 의성, 상주, 문경, 충북 단양)에 대해 7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돼지농장을 비롯해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이 대상이다. 또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곳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곳에 대

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50여 곳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의 경우 추이상이 없으면 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는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 대책회에서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발생농장은 농장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다수 검출됐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검출이 많은 경북의 여타 지역도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살처분 등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이달 기준 돼지고기 공급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업' 2차 모집

사회적기업진흥원 이달까지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일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2차 모집을 이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총 14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1000건의 측정을 목표로, 총 3회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한

다는 취지에서 참여대상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됐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이를 경영개선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진행되는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해 7월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우포늪·화왕산 국립공원 일대 습지·산림 생태계 통합보전 추진

경남 창녕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지정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7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위원회에서 경남 창녕 전역(530.51㎢)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이란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을 핵심구역으로 하여,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곳을 말한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 습지보호



경남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우포늪(왼쪽)과 화왕산.

지역과 화왕산 국립공원 일대로 구성됐다.

또 두 핵심구역을 연결하며 생태통로 기능을 수행하는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이 완충구역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제외된 창녕군 전역이 협력구역으로 설정돼,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했다.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관인 창녕군은 습지 및 산림 생태계의 통합적 보전에 나선다. 유네스코가 인증하

는 우수 생태지역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 생산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유네스코 지역에 걸맞은 생태관광 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창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우포늪으로 대표되는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이라며 "창녕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 개최

한기대, 600명 대상 기술 전수 집체·온라인 등 하이브리드 강의

직업훈련 교·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품질 특강이 개최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교·강사 6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9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2024년 직업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집체 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강의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뤄지며, 특강에 참여할 직업훈련 교·강사는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7

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강에서는 아나운서 출신이자 스피치 전문가 정흥수 흥버튼 대표가 '청중을 사로잡는 말하기 기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한기대 정혜경 HRD학과 교수가 '훈련교·강사역량관리 체계' 강연을 통해 훈련 교·강사의 체계적인 역량 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다.

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강연한다.

/세종=한용수 기자